

6·25전쟁 이전 북한의 군사원호사업 연구

김선호*

북한의 정치세력은 6·25전쟁 이전에 군사원호사업의 모델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중국·일본에서 찾았고, 각국에서 추진한 군사원호사업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 뒤 이를 해방 이후 북한에 적용했다. 이들은 1946년부터 애국미헌납운동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권 운영에 필요한 양곡·임금·금품을 헌납받았다. 북한 지도부는 2년 동안 대중적 동원운동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동원의 수단과 방식을 체계화한 뒤에 이를 군사원호사업에 적용했다.

북한의 군사원호사업은 군인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청년들을 군대의 보충역으로 양성하며 무기구입기금을 축적하는 군사적·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군의 전력을 급격히 증강할 수 있었고 전시에 필요한 예비병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군사원호사업은 북한 주민들을 정부의 정책에 긴밀히 결속시켰다. 북한은 군사원호사업에 참여한 미담사례와 모범적인 노동자·농민·여성을 애국자로 격상시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같은 미담과 모범사례는 이를 접한 주민들이 군사원호사업에 더 많이 동참하게 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성과를 보이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정부는 군사원호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체제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주제어: 북한군, 조국보위후원회, 인민군대 원호사업, 무기구입기금 헌납운동,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스타하노프운동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리말

북한은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을 공식적으로 창설했다.¹⁾ 그리고 김일성은 1948년 9월 10일에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완성(完整)”을 공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는 사업”을 강조했다.²⁾ 즉, 북한정부는 1948년 9월에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북한군³⁾을 강화하고 무력에 근거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국토완정론(國土完整論)’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정부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각 병종부대를 신편하고 소련제 무기·장비를 도입해서 전력을 증강하는 것과, 군인들이 군사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전쟁 준비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동원함으로써 전시동원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내각은 군인들을 후원하고 주민들을 전쟁 준비에 동원하기 위해 ‘군사원호사업(軍事援護事業)’을 추진했다.⁴⁾

-
- 1) 김일, “조선인민군 창건 二주년에 제하여,”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조선인민군 선전원수책』, 제3호(평양: 민족보위성, 1950.2.1.), 1쪽.
 - 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발표: 1948년 9월 10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8.5.), 257~264쪽.
 - 3) 북한군은 민족보위성 예하의 인민군(人民軍)과 내무성 예하의 내무군(內務軍)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내용에 따라 각각의 고유 명칭을 사용했다.
 - 4) 북한에서 원호는 “도와주며 돌보는 것”을 뜻하며 “후방가족원호사업, 선전원호물자” 등으로 사용된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819쪽.

북한이 추진한 군사원호사업은 선행연구에서 군사원호단체인 조국보위후원회(祖國保衛後援會)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분석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군대를 후원하고 주민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 헌납운동, 회원들에 대한 군사지식·기술의 보급, 민간 군사훈련을 담당했다.⁵⁾ 선행연구는 북한의 6·25전쟁 준비·수행과정을 분석하면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일부 다루었다.⁶⁾

조국보위후원회에 관한 독립연구는 북한이 전쟁준비과정에서 전체 사회의 군사화를 위해 대중동원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설립했으며, 조국보위후원회가 구축한 동원체제 덕분에 개전 직후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모델은 소련의 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와 일제시기 조선군사후원연맹이었으며, 북한정부는 후원회를 통해 군비(軍費)를 확충하고 모병대상자를 일상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전쟁 이후 북한군의 전력을 강화·충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⁷⁾

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서울: 나남, 1996), 779~780쪽;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 제109호(2018), 205~243쪽; 김선호,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기원과 6·25전쟁 이전 조직·활동,” 『동북아연구』, 제35권 2호(2020).

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 777~785쪽;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590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울: 선인, 2005), 273~274쪽;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군사』, 제57호(2005);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9~51, 57쪽; 황성칠,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63~165쪽; 김재웅,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 『한국사연구』, 제175호(2016), 251~255쪽.

선행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원호사업은 여전히 해명해야 할 연구주제가 있다. 먼저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은 부분적으로 해명되었지만 6·25전쟁 이전 군사원호사업의 전체적인 추진과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각 군사원호사업의 구체적인 실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것이 북한의 전쟁 준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 이전 북한의 군사원호사업을 자료에 입각해 재구성하고 군사동원체제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인민군대 원호사업’의 추진과정과 집행실태를 확인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비행기·탱크·합선기금 헌납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이것이 군비 충원과 군사동원체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 글은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교육과 군사훈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목적을 해명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미군노획문서(美軍鹵獲文書)에 들어 있는 북한의 군사원호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

2. 인민군대 원호사업과 정신적·물질적 원호

1) 군인 원호사업과 정신적 원호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8년 2월 8일 창설된 ‘인민군’을 공격전을 수

7)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205~243쪽; 김선호,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기원과 6·25전쟁 이전 조직·활동,” 131~156쪽.

행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권과 민간의 영역을 총동원해서 군대를 원호(援護)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에서 군대를 원호하는 군사원호사업이 최초로 계획된 시점은 1948년 3월이다.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는 1948년 3월 10일에 개최한 제56차 회의에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세계청년주간 기념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상무위원회는 세계청년주간을 맞아 각급 당단체들에 각종 과업을 지시했는데, 그중 하나로 각급 당단체에 “인민군대와 인민보안대를 방조하는 사업을 조직하며 더욱이 병사들의 가족생활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사업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⁸⁾

1948년 3월 시점에 북한정치세력이 구상한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인민군·내무군을 원조하는 사업과 군인들의 가족을 원호하는 사업이었다. 북한 정치세력은 정규군의 전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군인들이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호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시기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북조선로동당이 당 조직계통에 하달했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급 당단체가 집행했다. 그러나 1948년 3월까지 원호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실행세칙은 구체적으로 입안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규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정부는 군사원호사업을 단체의 주관 아래 추진하기 위해 1949년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결성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 후원회의 주요임무는 인민군대 강화사업, 국토보위사업, 군사지식의 습득,

8) “세계청년주간 기념사업 실시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56차 회의 결정서(1948.3.10),”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351~352쪽.

과학지식 습득과 발명, 항공과학의 발전, ‘반동분자’로부터 조국의 보위였다.⁹⁾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7월부터 각 도·시·군에 도본부·시본부·군본부를 설립했으며, 면·리·공장·기업소·학교·가두에는 초급단체를 조직했다. 조국보위후원회의 하부단체는 1949년 7월부터 각 지방의 리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학교·직장으로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결성되었다. 그 결과 북한 전역에 25,000여 개의 초급단체가 조직되었고 회원은 2,691,000명에 이르렀다.¹⁰⁾

북한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군사원호사업은 인민군대 원호사업이었다.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군인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업과 군인의 부양가족을 원호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군인들을 직접 후원하는 사업은 선물·위안문·격려문 보내기와 군인들에 대한 위안회·오락회였다.¹¹⁾

군인에 대한 원호사업은 1948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평양시의 인민학교·중등학교·전문학교 학생 수만 명은 1948년 12월에 인민군 군인들에게 1,260여 점의 선물을 보냈고 1949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00여 점의 선물을 증정했다.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60여 점의 수예품을 만들어 증정했다. 또한 평안남도 공

9)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49. 10.), 1, 29쪽, NARA, RG 242, SA 2009, Box 1, Item 85. 다음부터 SA 자료는 SA 2009-1-85 등으로 줄이고 『조국보위를 위하여』는 반복될 경우에 간행 정보를 생략한다.

10) 김선호,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기원과 6·25전쟁 이전 조직·활동,” 143~146쪽.

11) 김인환, “조국보위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조쏘문화협회 중앙위원회, 『조쏘친선』, 1949년 11월호(평양: 조쏘문화협회 중앙위원회, 1949. 11. 10.), 11쪽, SA 2006-15-20.

장의 노동자들은 1949년 1월에 신년축하연에 군인들을 초대해서 위안·격려사업을 진행했다. 원산시 여성동맹 맹원들은 군인들에게 카라(옷깃) 100점, 수갑 29점, 손수건 200매를 만들어 증정했고 50명으로 구성된 연예회를 조직해서 ‘인민군대 위안의 밤’을 개최했다.¹²⁾

따라서 북한정부는 1949년 7월에 조국보위후원회를 설립해서 이미 1948년 12월부터 추진된 군사원호사업을 단체의 주관 업무로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조국보위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조국보위후원회의 주관 아래 각 기관·사회단체·학교의 자체사업으로 동시에 추진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 함경북도본부는 1949년에 인민군 군인과 내무성 경비대 대원들에게 선물 수십만 점과 위문편지 3,000여 통을 보냈고, 조국보위후원회 청진시본부에서는 기업가 강제석로부터 50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 등 ‘애국적 기업가·상인들’로부터 모두 100여만 원의 금품을 조국보위후원사업 명목으로 받았다.¹³⁾

사회단체와 학교는 처음에 금품이 아니라 선물과 위문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원호했다. 평양시 여성동맹 산하 83개 단체는 1949년 8월 15일에 해방 4주년을 기념해서 인민군대와 경비대 군인들에게 군인증·맹증 주머니 3,500개와 “8·15해방 4주년 만세, 단결하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등의 자수품을 보냈다.¹⁴⁾ 평양 제1여자중학교 전체 학생들은 1949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민군대에게 선물과 위문편지를

12) 金賢, “人民軍隊에 드리는 人民들의 情誠,” 『새조선』, 제2권 2호(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3.18.), 53~54쪽.

13)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이다,”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41쪽.

14)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이다,” 39~40쪽.

보냈고, 1950년 초에는 직접 제작한 손수건과 군인증 주머니 등 1,300여 점의 선물과 1,500여 통의 편지를 군인들에게 보냈다. 또한 평양 제1여자중학교 서클 회원들은 음악, 무용, 연극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군무자 위안사업”을 전개했다.¹⁵⁾

이와 같은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38선 접경지역에서도 진행되었는데 “군무자 원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타 지역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38선 접경지역의 농민들은 내무성 경비대 대원들을 도와서 전호(戰壕)를 구축했으며, 청년들은 경비대의 연락사업을 돕고 부락에서 자위대활동을 전개해 경비대의 경비 업무를 경감시켰다. 접경지역의 여성들은 경비대 대원들의 빨래를 세탁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38선 접경에 있는 황해도 장풍군의 여성동맹 맹원들은 1949년 10~12월에 경비대 대원들의 군복을 세탁해 주었으며, 경비대에 가서 약 40일 동안 식사를 만들어 주었다. 이 가운데 장풍군 장도면 중리 조금의는 대덕산 전투부터 경비대를 따라다니면서 15일 동안 여러 부대에서 밥을 지어 주고 군복을 세탁해 주었다.¹⁶⁾

일반적인 지역과 기관의 군사원호사업은 물품이나 금품을 헌납해서 이를 군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38선 접경지역의 군사원호사업은 물품이나 금품이 아니라 전호 구축, 자위대 활동, 식사·세탁 제공 등 주민들이 군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군사동원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38선 접경지역에서 실제로 전

15)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1): 조국보위후원사업과 군무자가족원호사업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한다』(평양: 문화선전성, 1950), 11쪽, SA 2009-3-149.

16)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1)』, 12쪽.

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개전 이후에 보편화되는 직접적 군사동원은 이처럼 38선 접경지역의 군사원호사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 부양가족 원호사업과 물질적 원호

한편 북한정부는 군인에 대한 원호사업과 별도로 군인의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추진했다. 내각은 1949년 5월 9일에 내각결정 제45호로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해서 인민군대와 내무성 경비대에 입대한 전사·하전사들의 부양가족들에게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¹⁷⁾ 이 결정에 따라 군대에 입대한 노동자·사무원들의 부양가족은 국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농민 출신 군인의 부양가족은 농업현물세를 15~30% 한도 내에서 감면받았다. 또한 부양가족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취직이 알선되었으며 국가배급도 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무료치료가 실시되었고 주택이 보장되었다.¹⁸⁾

사실 군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은 내각결정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함경남도 함주군 처선면 상운흥리의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맹원들은 1949년 1월에 자신들의 부락에서 입대한 리록원 중사의 집을 찾아가서 수시로 위문하고 농사일을 도와주었다.¹⁹⁾

1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決定 第45號: 朝鮮人民軍隊 戰士 및 下士官들의 扶養家族 援護에 關한 決定書,” 내각사무국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1949년 1~6월)』(평양: 내각사무국, 1949), 39~40쪽.

18) 조선중앙통신사 엮음, 『조선중앙년감(1950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66쪽.

19) 金賢, “人民軍隊에 드리는 人民들의 情誠,” 54쪽.

즉, 북한정부는 1948년 12월에 군사원호사업을 개시한 이후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해 온 부양가족 원호활동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북한정부가 군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은 조국보위후원회의 원호사업이 주로 선물·위문편지·위안회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적 후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내각은 군대의 전투력이 '장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계와 후방의 공고성에 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전사들이 후방가족에 대해 아무런 근심 없이 조국보위사업에 전력을 다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판단했다.²⁰⁾ 그리고 부양가족 원호에 대한 결정이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선 인민들의 사랑과 열정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²¹⁾ 이 같은 전투력 인식에 따라 북한정부는 조국보위후원회의 원호사업과 별도로 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물질적 혜택을 줌으로써 군인들이 가족에 대한 걱정 없이 군대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군인의 부양가족에게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부양가족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원호사업 해당자 여부는 군인들의 거주지에 있는 인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먼저 군부대에서 부대원의 주소지 인민위원회에 '복무증명서'와 '해당유가족조사표'를 발송했다. 주소지 인민위원회는 이 두 가지 서류와 "내각 제45호 결정 시

20)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1)』, 12~14쪽.

21) 위의 책, 8쪽.

행세측”에 따라 원호사업 해당자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가 끝나면 인민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소속부대에 회송했다. 가령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인민위원회 위원장 정만영은 1949년 7월 29일에 민족보위성 직속 항공연대 연대장에게 부양가족 원호사업 해당자 심의결과를 회송했다. 안악면에는 항공연대 부대원 최남식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인민위원장은 최남식의 가족이 원호사업 해당자이므로 동봉하는 심의 결과를 본인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²²⁾

제845군부대가 1949년 6월 1일에 발급한 ‘복무증명서’를 보면 ‘복무증명서’에는 군인의 본인 주소, 가족 주소, 직위, 성별, 입대 전 직업, 성명, 출생 연월일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상기 동무는 ○년 ○월 ○일 본부대에 입대하여 복무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술되었다. ‘복무증명서’는 군인의 소속 부대장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군인 가족의 주소지 인민위원장에게 보내졌다. 대표적으로 제845군부대 전사 김기호의 가족 주소지는 황해도 수완군 천공면 평원리였는데 ‘복무증명서’는 “천공면인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졌다. 시단위에서는 시인민위원장에게 보냈고, 군단위에서는 면인민위원장에게 보냈다.²³⁾

원호사업 해당자 심의에 필요한 군인들의 복무 사실은 ‘직장근무증명서’라는 이름으로도 발급되었다. ‘직장근무증명서’는 ‘복무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의 소속, 직무, 성명, 발급시일, 부대장의 성명·날

22)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인민위원회 위원장 정만영, “존경하는 인민군 대장동지 앞(1949.7.29.)” 대열과, 『제반신청서철』(평양: 항공연대 대열과, 1949), SA 2009-2-157.

23) 朝鮮人民軍 第845軍部隊長, 『服務證明書』(평양: 제845군부대, 1949.6.1.), SA 2009-2-10.

인이 기입되었으며, “상기 동무는 조선인민군 제8900군부대에 복무함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었다.²⁴⁾ ‘직장근무증명서’는 부대의 군무원들에게도 발급되었다. 항공연대장 왕련은 1949년 2월 22일에 “조선인민군 제8900군부대 고용인 김덕균”에 대한 ‘직장근무증명서’를 발급했다.²⁵⁾ 그러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원호 혜택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양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은 정부에서 주관했지만 사회단체와 직장에서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청진제유공장 노동자들은 내각 결정 제45호에 따라 1949년도에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적고 가족이 많은 군인 가족들을 원호했다. 이들은 목수와 토공(土工)을 동원해서 군인 가족의 주택을 수리해 주었다. 또한 평안북도 용천군 양하면의 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맹원들은 1949년 춘경부터 추수 때까지 군인 가족들의 농사를 도왔으며, 1950년에도 군인 가족들이 고공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벗짚을 질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었다.²⁶⁾ 평남 강동군 강동탄광 노동자들은 1949년 10월 2일 직장대회에서 인민군대 가족원 호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5명으로 후원회를 조직한 이후에 매월 군인 가족의 사택 수리, 노동력 협조, 위안사업 등의 원호 사업을 전개했다.²⁷⁾

24) 조선인민군 제8900군부대 부대장 왕련, “직장근무증명서(1949.2.18.)” 대열과, 『제반신청서철』.

25) 조선인민군 제8900군부대 부대장 왕련, “직장근무증명서(1949.2.22.)” 대열과, 『제반신청서철』.

26)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1)』, 13쪽.

27)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이다,” 39~40쪽.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부양가족 원호사업은 북조선여성동맹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49년 6월 말 현재 북조선여성동맹은 인민군 군인의 부인들에게 1,628회에 이르는 ‘노력협조’를 추진했고 여기에 동원된 연인원은 10,179명에 달했다. 그리고 여성동맹은 “인민군 군인의 안해가 된 영예를 빛내이자”라는 구호 아래 14,538회에 걸쳐 위문모임을 가졌다.²⁸⁾ 또한 사회단체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부양가족 원호사업을 추진했다. 평북 용천군 방곡동 농민들은 1949년 10월에 각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해 청년동맹·농민동맹·여성동맹에서 공동으로 군인 가족에 대한 영농협조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49년 추경부터 1950년 초까지 청년동맹과 여성동맹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민동맹은 축력과 농기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²⁹⁾ 이처럼 사회단체·직장의 부양가족 원호사업은 정부와 달리 노동력·축력·농기구의 제공이나 정신적 위안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결국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조국보위후원회의 주관 아래 추진되었고 부양가족 원호사업은 정부의 주관 아래 진행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10월에 기관지에 게재한 논설에서 향후 과업에 대해 전체 주민들을 조국보위후원사업에 정신적·경제적 측면에서 헌신하도록 만들으로써 인민군·경비대·보안대에 위문편지와 위문품을 더 많이 보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후원회를 통해 군인 가족을 위로하

28) 리규희, “조국보위후원회사업과 여성들의 역할,” 북조선민주녀성총동맹, 『조선녀성』, 1949년 9월호(평양: 조선녀성사, 1949.9.25.), 27~28쪽, SA 2008-9-19.

29)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이다,” 39~40쪽.

는 사업과, 그들의 가옥 수리와 이양·제조·추수를 도와주는 사회적 운동을 조직하며, 추수와 월동 준비를 돕는 협조대책운동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³⁰⁾

이와 같은 인민군대 원호사업은 6·25전쟁 이전에 남한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노력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 영주군 문서면 농민들은 1949년 12월 8일에 군중대회를 열어 “인민유격대 원호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유격대 원호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양곡 60두(대두), 현금 약 8,000원, 옷 수백 점을 거두어서 인민유격대에 보냈으며 전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인민유격대 원호사업 호소문을 채택했다. 농민들은 이 호소문에서 ‘우리들의 귀중하고 훌륭한 자녀들인 인민유격대를 위하여 다 같이 광범한 원호사업을 전개합시다’라고 호소했다.³¹⁾

3. 무기구입기금 헌납운동과 군비 충원

1) 무기구입기금 헌납운동의 전개와 결과

북한에서 추진된 두 번째 군사원호사업은 무기구입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헌납운동이었다. 기금헌납운동은 조국보위후원회가 조직된 지 한 달 후인 1949년 8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1949년 8월 말

30)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이다,” 41쪽.

31)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2):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무장력은 남반부인민들의 구국무장유격투쟁을 고무격려하며 승리에 대한 굳은 자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평양: 문화선전성, 1950), 12~13쪽, SA 2009-3-151.

에 “조국보위후원사업기금”으로 청진시 기업가 강석재가 50만 원을, 평양시 기업가 리태봉이 30만 원을 헌납했다.³²⁾ 이어 함흥시에 거주하는 리근묵은 1949년 9월 중순에 “조국보위후원회사업”에 100만 원을 희사했고,³³⁾ 흥남시의 기업가 박춘삼은 9월 말에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해 150만 원을 희사했으며,³⁴⁾ 평양시의 기업가 리종해도 200만 원을 희사했다.³⁵⁾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각 지역에서 기금헌납운동이 시작되자 1949년 10월 12일에 비행기와 탱크를 국가에 헌납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기금헌납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³⁶⁾ 그리고 중앙본부는 기금헌납운동을 전개한 지 한 달 후인 11월 22일에 비행기·탱크와 함께 함선도 헌납하기로 결정했다.³⁷⁾

이 운동의 정식 명칭은 “비행기, 탱크, 함선 기금헌납운동”이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민적 운동’이었다. 기금헌납운동은 노동자의 경우 “애국로동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고 농민의 경우 “애국미(愛國米)헌납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생산계획을 초과해 받은 상금과 각종 애국노동으로 얻은 보수를 비행기·탱크·함

32) “조국보위후원 사업기금으로,” 『로동신문』, 1949년 8월 28일.

33) “완전한 전투적 준비로써 인민의 적을 소탕키 위하여,” 『로동신문』, 1949년 9월 17일.

34) “완전한 전투적 준비로써 인민의 적을 소탕키 위하여,” 『로동신문』, 1949년 9월 30일.

35) “평양시의 기업가 리종해씨 2백만원 희사,” 『로동신문』, 1949년 10월 1일.

36)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 조국보위 위한 인민들의 애국 열성, 인민군대에 비행기와 탱크를 헌납,” 『로동신문』, 1949년 10월 13일.

37) “함선도 헌납키로 결정,” 『로동신문』, 1949년 11월 23일.

선 기금으로 헌납했다. 대표적으로 1949년에 흥남비료공장 노동자들은 애국노동을 통해 235만 원을, 철산광산 노동자들은 100만 원을 헌납했다. 농민들은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토지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일부를 비행기·탱크·함선을 구입하기 위한 애국미로 헌납했다. 황해도 신천군의 한 농민은 200가마니의 쌀을 헌납했고 재령군의 한 농민은 130가마니의 쌀을 헌납했다.³⁸⁾ 헌납운동에는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들도 참여했다. 화교들은 1949년에 비행기·탱크·함선 기금으로 174만 원과 금기(錦旗) 일면(一面)을 헌납했다.³⁹⁾

북한이 추진한 애국노동의 역사적 기원은 소련에서 1919년 전쟁시기부터 진행된 ‘토요노동’이다. 레닌은 1919년 4월 11일 「동부전선의 정세에 관한 테제」를 발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라고 호소했는데, 이 호소에 호응해서 모스크바 철도관구 노동자들이 1919년 4월 12일에 처음으로 “공산주의적 토요노동”을 조직했다. 이 최초의 균중적·공산주의적 토요노동은 5월 10일에 모스크바 까산철도에서 개시되었다.⁴⁰⁾ 이 토요노동은 초과노동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애국노동은 소련에서 노동력과 관련해 추진된 스타하노프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돈바스 탄광의 채탄부 노동자 스타하노프(Alexey G. Stakhanov)는 1935년에 탄광조원 5명을 데리고 분

3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3~284쪽.

39)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1)』, 9~11쪽.

40) 소련한림학사 이·민츠, 『쏘베트군대력사』, 상권, 김동철·현희안 공역(평양: 민주조선사, 1949), 231~232쪽, SA 2009-6-128.

업노동방식과 새로운 채굴방식을 도입해 1일 책임량인 7.3톤을 넘어서 103톤의 석탄을 채굴했다. 소련정부는 스타하노프의 노동방식을 전체 석탄부문에 도입했고 그 후 전체 산업부문으로 확산시켜 ‘스타하노프 운동’을 추진했다.⁴¹⁾ 스타하노프운동은 노동방식을 혁신해서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증산경쟁운동이었지만, 애국노동은 법에 규정된 노동시간 외에 초과노동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는 초과노동운동이었다.

또한 북한의 애국미헌납운동은 이미 1946년부터 전개된 운동이었다. 황해도 재령군 출신으로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의 소작농이었던 김제원(金濟元)은 토지개혁을 통해 3,300평의 농지를 분여받았다. 그는 1946년 12월 10일에 열린 재령군 농업현물세 완납경축대회에서 국가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현물세 외에 쌀 30가마니를 헌납했다.⁴²⁾ 김제원이 애국미를 헌납하자 같은 시기에 황해도 봉산군의 머슴 출신 농민 김시옥(金時郁)도 수확한 쌀 78가마니 중 25가마니를 애국미로 헌납하면서 “제2의 김제원”으로 불렸다.⁴³⁾ 이와 같은 헌납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애국미헌납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수년간 대중운동으로 진행되었다.

1949년의 기금헌납운동에는 노동자와 농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참여했다. 청진시에서는 1949년에 기업가·상인들이 약 100만 원을 조국보위후원회에 헌납했다.⁴⁴⁾ 함흥시의 기업가·상인들

41)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쓰다하노브적 운동이란 무엇인가?” 『로동자』, 제2호(평양: 로동자신문사, 1948.6.15.), 82~84쪽.

42)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서울: 역사비평사, 2018), 271쪽.

43) “鳳山郡이 나흔 第二의 金濟元 愛國者 金時郁氏의 이 뜨거운 至誠을 보라,” 『朝鮮新聞』(朝鮮人民을 위한 쏘베트군대신문), 1947년 1월 11일.

44) 지홍석, “조국보위와 군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후원사업은 전인민적 과업

〈표 1〉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 헌납 현황(1949년 12월 말 현재)

도별	현금(원)	비율(%)	량곡(가마니)	비율(%)
평양시	83,438,000	29.7	226	0.5
평안남도	46,613,000	16.6	10,926	22.5
평안북도	25,320,000	9.0	11,248	23.2
함경남도	45,510,000	16.2	8,739	18.0
함경북도	28,272,000	10.0	1,893	3.9
강원도	27,466,000	9.8	5,327	11.0
황해도	19,978,000	7.1	7,494	15.5
자강도	3,764,000	1.3	2,611	5.4
중앙본부에 직접 헌납	712,000	0.3	-	0
계	281,073,000	100	48,464	100

주: 이 표에서 중앙본부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를 뜻한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보관자료 제2675호,”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285쪽에서 재인용.

은 1949년 10월에 비행기·탱크·함선기금으로 약 1,000만 원을 회사했고, 평양시의 기업가·상인들도 11월 4일에 현금 55만 원을 헌납하고 비행기 17대를 헌납하기로 약속했다. 기금헌납운동에는 학생들도 참여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1949년 11월 4일에 궐기모임을 개최해서 “대학포 헌납운동”을 발기했다. 아울러 북한 전역의 학생들도 기금헌납운동에 동참했다.⁴⁵⁾ 즉 기금헌납운동에는 노동당의 핵심계급인 노동자·농민뿐만 아니라 기업가·상인·학생 등 통일전선에 포함된 다양한 계급·계층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기금헌납운동은 계급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애국미헌납운동처럼 기업가들의 기금헌납도 이미 1946년부터 건국

이다.” 41쪽.

4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284쪽.

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⁴⁶⁾ 1946년 가을에 평양특별시 교구리 선만(鮮滿)주철소 지배인 최홍진(崔弘眞)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3차 확대위원회에서 애국미헌납운동에 관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낸 호소에 호응해서 보습 100개를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에 헌납했다. 최홍진의 헌납은 평양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내에 있는 공장의 사장들도 농구와 화로를 헌납했다. 평양시 흥산(興山)공업소 사장 홍순범(洪淳範)은 화로 20개를, 신리 대동농구제작소 사장 김은환(金銀煥)은 가마 20개를, 유성리 유일주물공장 사장 김계추(金桂秋)는 화로 30개를 헌납했다.⁴⁷⁾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6년부터 애국미헌납운동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권 운영에 필요한 양곡·임금·금품을 헌납받았다. 그리고 다양한 계급과 계층에서 모범인물을 발굴하고 각 지역의 미담을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북한지도부는 2년 동안 대중적 동원운동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동원의 수단과 방식을 체계화한 뒤에 이를 군사원호사업에 적용한 것이다.

1949년에 북한 전역에서 기금헌납운동이 전개된 결과 1949년 12월 말까지 2억 8천만 원의 현금, 48,000여 가마니의 양곡, 300여 점의 귀금속이 국가에 헌납되었다.⁴⁸⁾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6) 1946년 12월 6일에 시작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일제사상 잔재의 척결을 기치로 내세워 문맹퇴치운동 등 사상개혁운동과 증산경쟁운동을 추진한 운동이며, 북한 대중동원운동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김재용,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현실』, 제56호(2005), 266~267쪽.

47) “澎然히 끌른 이 愛國熱 金濟元 義舉에 報答 農具 화로 二十餘點 獻納,” 『朝鮮新聞』, 1947년 1월 4일.

현금의 헌납 결과를 보면 전체 헌납액 중 평양시를 포함한 평안남도에서 46.3%를 헌납했고 함경남도에서 16.2%를 헌납했다. 평안남도는 북한지역의 경제중심지였고 함경남도는 흥남비료공장 등 화학공업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현금을 보유한 기업가와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헌납액이 컸던 것이다. 양곡의 헌납 결과를 보면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북한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에 수확량의 25%를 농업현물세로 징수했는데 평남과 평북의 현물세 징수율은 75%와 71%로 도별 1·2위를 차지했다.⁴⁹⁾ 평남과 평북은 다른 지역보다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은 후 정권의 정책에 동참하는 농민이 많았기 때문에 양곡 헌납량이 많았던 것이다.

기금헌납운동을 주도한 조국보위후원회는 1950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회사받거나 헌납받은 기금 중 일부를 1차로 북한정부에 헌납했다. 중앙본부는 1월에 평양에서 헌납식을 거행하고 “인민군대에 바칠 비행기·땅크 헌납기금” 1억 2,000여만 원을 정부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⁵⁰⁾ 헌납식은 1월 25일에 개최되었는데, 헌납기금의 총액이 약간 감소했다. 이날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비행기·탱크·합선기금으로 총 1억 원을 헌납했다. 헌납식에는 민족보위상 최용건(崔庸健)이 직접 참석해서 기금 헌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⁵¹⁾ 제1차 헌납식이

48)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41쪽; “비행기·땅크·합선기금 회사,” 『로동신문』, 1950년 1월 5일.

49) 현물세 징수율은 강원도 57%, 함남 44%, 함북 38%, 황해도 32%, 도별 평균 52.8%였다.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 296쪽.

50) “인민군대에 바칠 비행기 땅크 헌납기금 1억 2천여만원!,” 『로동신문』, 1950년 1월 13일.

거행된 1950년 1월 이후에도 조국보위후원회에는 계속해서 기금이 들어왔다.⁵²⁾

2) 무기구입기금 헌납운동의 모델과 준비

민간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모금해 국가에 무기를 헌납하는 군사원호활동은 이미 해방 전에 여러 나라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먼저 소련은 1926년 1월에 대중적 국방단체로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를 설립했으며,⁵³⁾ 이 단체를 통해 1930년대에 비행기 구입용 기금을 모았다. 국방항공화학후원회는 모집된 기금으로 소련 육군에 300대 이상의 비행기를 헌납했다.⁵⁴⁾ 또한 국방항공화학후원회는 무기생산에 사용될 “국방기금”을 모금했는데 1930년 11월에만 전국적으로 ‘국방데이 캠페인’을 펼쳐서 500만 루블의 국방기금을 모았다.⁵⁵⁾

아울러 중국에서도 1930년대에 사회단체가 조직되어 모금을 통해 비행기를 헌납했다. 상해시장 오철성(吳鐵城) 등은 1933년 초에 “중국항공협회(中國航空協會)”를 조직했다. 중국항공협회는 80여 개 대도시에 분회(分會)를, 600여 개 소도시에 지회(支會)를 설치했다. 중국항공협회는 “항공국방의연운동(航空國防義捐運動)”을 추진했는데, 학생호(學

51) “인민군대에 바치는 비행기 땅크 함선기금 1억원 헌납,” 『로동신문』, 1950년 1월 27일.

52) “비행기 땅크 함선 기금 답지,” 『로동신문』, 1950년 2월 12일.

53) 혁호,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후원회,” 조쏘문화협회 중앙위원회, 『조쏘친선』, 1949년 10월호(평양: 文化出版社, 1949.10.10), 34쪽, SA 2006-15-20.

54) “五個年計劃과 軍需工業의 發達(二): 露西亞篇,” 『동아일보』, 1934년 2월 20일.

55) “躍進하는 赤衛軍,” 『동아일보』, 1933년 11월 9일.

生號), 아동호(兒童號), 공인호(工人號), 상인호(商人號), 상해호(上海號), 한구호(漢口號) 등의 비행기 명칭을 내걸고 구입기금을 모았다. 그 결과 1933년 2월에 350대의 비행기를 구입했다. 또한 해외의 화교들도 100대의 비행기를 국민당정부에 헌납해서 화교 제1호~제100호를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연금을 모집했다. 실제로 남양화교회(南洋華僑會)는 1933년 2월에 10대의 미국제 전투기를 헌납했다. 이와 함께 국민당 정부는 200대의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2,000만 위안(元)의 공채장권(公債裝券)을 발행했다.⁵⁶⁾

일제시기 조선에서도 비행기를 헌납하기 위한 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 경북의 기업가 문명기(文明琦)가 애국기를 헌납한 것을 계기로 1936년 1월에 경성에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朝鮮國防飛行機獻納會)”가 조직되었다. 비행기헌납회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애국기헌납운동”을 전개했다. 회장은 김관현(金寬鉉)이었다. 비행기헌납회는 1937년 10월 20일까지 75,000원의 기금을 모금했으며 이 기금으로 일본군 육군·해군에 애국기 2대를 헌납했다.⁵⁷⁾

비행기헌납회와 같은 전국적 단체 외에 개별적 사회단체도 조직되었다. “경기호(京畿號)헌납회”는 1937년 11월에 모금한 기금을 바탕으로 육군·해군·공군에 3대의 비행기를 헌납했다. 그리고 비행기를 헌납하고 남은 기금 9,363원으로 고사기관총 4대와 다른 무기를 구입해 헌납했다.⁵⁸⁾ 또한 경북·충북·함북·황해도의 사회단체도 1937년 12월 3~18일에 각각 경북호·충북호·함북호·황해호를 헌납했다.⁵⁹⁾ 조선에

56) “航空, 化學戰隊 等 新軍備 積極 準備,” 『동아일보』, 1933년 2월 10일.

57) “二機 獻納을 最後로 朝飛機獻納會 解散,” 『동아일보』, 1937년 10월 23일.

58) “美談一束,” 『동아일보』, 1937년 11월 3일.

서 1937년 8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모금된 헌납금은 8,206,938원이었으며 이 기금으로 비행기 65대가 헌납되었다.⁶⁰⁾

보다 흥미로운 점은 무기구입기금 헌납운동이 북한과 같은 시기에 남한에서도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1949년 11월부터 “건국항공기 헌납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1950년 4월 30일까지 3억 4,253만 원에 달하는 기금을 헌납받았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 기금으로 전투기 10대를 구입해서 5월 14일에 제1회 헌납기 명명식을 개최했다. 이 헌납기는 ‘건국1호~건국10호’로 명명되었으며, 기금 헌납주체에 따라 비행기마다 체신1호, 남전(南電)1호, 농회(農會)1호, 전남학도(學徒)1호, 경북1호 등의 별칭이 부여되었다.⁶¹⁾ 국방부의 관계자 중에는 중국국민당군대와 조선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항공기 헌납운동은 중국과 일본의 경험을 차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 헌납운동은 소련국방항공화학건설위원회, 중국항공협회, 조선국방비행기헌납회의 비행기 헌납운동을 모델로 해서 구상된 것이다. 그리고 운동의 명칭은 일제 시기 애국기 헌납운동에서 빌려 온 것이며, 애국기의 명칭은 중국항공협회와 조선의 비행기헌납회에서 빌려 온 것이다. 또한 북한과 남한은 공통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비행기 헌납운동의 경험을 차용해서 애국기·건국기 헌납운동을 추진했다.

59) “忘年會를 中止하고 費用을 防空에 國防獻金 美談一束,” 『동아일보』, 1937년 12월 9일.

60) “獻金 八百廿萬圓 飛行機 六十五臺,” 『동아일보』, 1939년 2월 9일.

61) “一回 航空機 命名式,” 『동아일보』, 1950년 5월 12일; “建國號로 命名, 一號부터 十號까지,” 『동아일보』, 1950년 5월 13일.

기금헌납운동은 무기구입기금을 축적한 경제적·군사적 효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을 정부의 정책에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북한정부와 조선로동당은 기관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기금헌납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실적과 미담을 홍보했고, 평범한 노동자·농민·여성 등 모범헌납자를 애국자로 격상시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같은 미담과 모범사례는 이를 접한 주민들이 기금헌납운동에 더 많이 동참하게 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성과를 보이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정부는 기금헌납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체제에 익숙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금헌납운동은 북한의 무기구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까? 6·25전쟁 이전까지 조국보위후원회가 모금한 무기구입기금을 통해 실제로 비행기·탱크·함선을 구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사회단체는 개전 이후인 1950년 7월에도 여전히 기금헌납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원산시 여성동맹은 7월 25일에 ‘여성호’라는 명칭으로 비행기 1대를 헌납하기로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현금과 쌀을 모았다.⁶²⁾

기금헌납운동을 통해 모은 현금과 쌀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정부는 1949년도 예산에서 ‘조국보위비(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8%인 31억 원이라고 공표했지만, 소련대사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도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103억 8,460만 원으로 전체 예산

62) “원산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녀성호(비행기) 헌납에 총궐기,” 습격기련대 민청위원회, 『라지오보도(1950.7.11~8.6)』(평양: 습격기련대, 1950), SA 2006-20-95.

의 52%였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 예산안에 포함된 군사비(조국보위비+국가운영비+경제차관 중 군사시설비)는 71억 7,200만 원이었다. 북한은 부족한 금액 32억 1,000만 원을 세 가지 방법으로 충당했다. 첫째, 1949년 3월 조·소경제문화협정에 의해 1951년 2월까지 제공될 8억 5,000만 원의 소련 차관을 군비(軍費) 확장을 위해 1950년 초에 앞당겨서 사용했다. 둘째, 약 5억 원 상당의 무기·탄약 구입비를 쌀·금·은·동과 다른 희귀금속으로 갚기로 약속했다. 셋째, 일부 금액은 바로 기금헌납운동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충당했다. 북한정부는 1950년 3월 26일까지 기금헌납운동으로 총 3억 4,223만 원과 쌀 77,600가마니(4,656톤 상당)를 헌납받았다.⁶³⁾

북한정부가 비행기·탱크·함선 건조기금 헌납운동을 통해 충당한 무기구입비는 1949년도 실제 군사비 103억 8,460만 원의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를 1949년도 국가예산에 공식적으로 책정된 조국보위비 31억 원과 비교해 보면 조국보위비의 11%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또한 북한정부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납부한 양곡을 통해 군량미를 비축했는데, 이 양곡에는 쌀뿐만 아니라 보리·밀·조·옥수수·대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⁴⁾ 그러나 기금헌납운동을 통해 헌납받은 양곡 77,600가마니는 모두 쌀이었기 때문에 군량미로 비축하기에 가장 적합했다.

무엇보다 기금헌납운동을 통해 모집된 현금과 양곡은 정부의 예산안에 설정된 세수입(稅收入)이 아니라 예산안에 계획되지 않은 추가

63)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56~58쪽.

64)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 275~276쪽.

수입이었다. 따라서 기금헌납운동의 결과물인 약 3억 5,000만 원의 무기구입기금은 북한정부에 예산안보다 더 많은 무기나 다른 기종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제공했다. 북한정부는 기금헌납운동을 통해서 무기구입기금을 확보하는 군사적·경제적 성과와 함께 주민들을 군사동원체제에 결속시키는 군사적·사회적 성과를 얻게 되었다.

4.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교육·훈련과 군사동원체제

1) 군사지식·군사기술의 교육

북한정부는 인민군대 원호사업, 무기구입기금 헌납운동과 함께 1949년부터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보급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조국보위후원회는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에 ‘군사과학지식’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원고를 호마다 정기적으로 게재했다. 다음은 『조국보위를 위하여』에 게재된 원고 중에서 군사과학의 지식과 기술에 관한 원고를 정리한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처음에 군사과학지식과 군사과학기술을 별도의 난으로 게재하다가 1950년부터 “군사과학지식 및 기술”로 통일했다. 다른 주제 원고와 군사과학 지식·기술 원고의 비율은 창간호에서 22 : 8의 비율이었으나 1949년 11월호에는 11 : 10로, 1950년 5월호에는 8 : 8의 비율로 변화했다. 즉,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에 게재된 원고 중 군사과학 지식·기술 원고가 점차 늘어나 개전 직전에는 50%를 차

〈표 2〉 『조국보위를 위하여』에 실린 군사과학 지식·기술에 관한 원고

권호	편집란	원고명(필자)-병종	원고수(병종별)
1949년 10월호 (창간호)	군사과학 지식	軍用로케트의 설계자: 아. 드. 자사드코(石仁 역)-포병 高空과 航空人(홍상의)-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8개(공통 1, 보병 1, 해군 1, 공군 3, 포병 2) • 다른 주제 22개
	군사과학 기술	제식훈련법(중앙본부 훈련부)-공통 무릎을 꿇고 사격하는 방법(브.가에게)-보병 모형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조계찬)-공군 활상과 상승기류(정홍근)-공군 현대 군함의 무장(그.빠달르가)-해군 과학의 무기 로케트(브.라쁘노브)-포병	
1949년 11월호	군사과학 기술	전차의 일반상식(중앙본부 훈련부)-탱크 제식훈련법(중앙본부 훈련부)-공통 보병총으로 엮드러서 사격하는 방법(중앙본부 훈련부)-보병 비행기의 개요(김중)-공군 비행기 구조의 개요(정두찬)-공군 항공과 항해술에 있어서 라디오까지야(이.스뵈 첵브쓰끼)-해군 그라이더는 무엇인가(김중건)-공군 모형기의 크기와 각요목의 변화(조계찬)-공군 런락병(느. 꼬쓰르르)-정찰 오-도자이로(동봉)-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10개(공통 2, 보병 1, 해군 1, 공군 4, 탱크 1, 정찰 1) • 다른 주제 11개
1950년 5월호	군사과학 지식 및 기술	구축함에 대한 지식(김관)-해군 포에 대하여(중앙본부 훈련부)-포병 광선과 목표(본사 편집부 편)-보병 초급활공기 훈련에 대한 고찰2(정홍근)-공군 방위는 어떻게 관정할 것인가(중앙본부 훈련부)-공 통 탄환은 이렇게 날아간다(본사 편집부 편)-보병 훈련의 기본동작(중앙본부 훈련부)-공통 전투에 있어서의 불의습격(아. 휘털보쁘)-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8개(공통 3, 보병 2, 해군 1, 공군 1, 포병 1) • 다른 주제 8개
1950년 6월호	보병편	보병의 위력-보병 묘준장치(본사 편집부 편)-보병 수류탄의 개념(중앙본부 훈련부)-보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8개(공통 2, 보병 4, 해군 1, 공군 1)
	군사 지식 및 기술	항공모함과 잠수함(김관)-해군 단위를 리용하는 거리측정(본사 편집부 편)-공통 전투기에 대한 지식-공군 기관총에 대한 지식-보병 훈련의 기본동작6(중앙본부 훈련부)-공통	

주: 이 가운데 1949년 11월호와 1950년 6월호의 내용은 각각 전호(前號)에 게재된 목차를 참고했다.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 2-4쪽;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목차, 19쪽.

지했다. 군사과학 지식·기술의 원고 내용을 보면, 각 병종 공통주제와 보병·해군·공군과 관련된 주제가 호마다 빠짐없이 게재되었다. 그 밖의 포병·탱크·정찰 병종에 관한 원고도 게재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게재된 원고는 공군에 관한 원고였는데 그 이유는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에 규정된 주요 임무 중 하나가 ‘항공과학의 발전’이었기 때문이다.

군사과학지식에 관한 원고는 주로 기관총·수류탄·포·군용로켓·구축함·항공모함·잠수함·비행기·글라이더·전투기·전차 등 무기에 관한 군사기술과, 상승기류·광선·방위·탄환·거리측정 등 군사과학에 관한 지식이었다.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원고는 제식훈련법, 훈련의 기본동작, 사격하는 방법 등 전체 병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제식훈련과 사격술에 관한 내용이었다. 군사과학지식과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원고를 비교해 보면 군사과학지식에 관한 원고가 2/3 이상을 차지했다. 조국보위후원회 기관지에는 각 병종의 전술문제나 구체적인 전투훈련에 대한 원고는 게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원고의 내용은 인민군에서 발행한 군사잡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민군은 1950년 2월부터 월간 군사잡지로 『군사지식』을 발간해서 군인들에게 군사지식을 보급했다. 『군사지식』 창간호에는 제2사단장 리청송이 쓴 “증강한 보병대대의 적 진지방어 돌파에 대한 전술훈련제강 작성법”과 리권형이 쓴 “대대 방어조직의 기본문제” 등 전술에 관한 원고가 게재되었다. 또한 “참모인원훈련의 조직과 그의 집행방법”과 “육박전훈련에 대한 상학진행방법” 등 실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투훈련에 관한 원고도 게재되었다.⁶⁵⁾

『조국보위를 위하여』와 『군사지식』을 비교해 보면 『조국보위를 위

하여』에 실린 원고들은 모두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에 대한 초보적이고 원론적 내용이었다. 이것은 후원회의 회원들이 민간인이자 보충역(補充役)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국보위를 위하여』에 실린 군사지식, 군사기술에 대한 원고는 모두 소련군의 무기·장비·훈련·전쟁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조국보위후원회 회원들에게 초보적이고 원론적인 소련군의 군사과학·군사기술을 학습시킴으로써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총원할 수 있는 보충역으로 육성한 것이다.

한편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11월부터 기관지와 별도로 “조국보위를위하여 문고”를 발행했다. 문고 제1집은 『불멸의 이름』으로 독소전쟁 당시 공군 영웅 ‘보리스 싸후오노브’와 폭격기기지 조종사들의 전투실화를 정리한 것이다. 제2집은 소련 영웅 ‘쓰·우샤꼬브’ 대좌가 쓴 『전투의 날』로 소련 항공대가 독일 항공대를 격파하는 내용의 전투기이다. 제3집은 『쏘독전기(蘇獨戰記)』로 독소전쟁의 역사를 연도별로 서술한 책이다. 이 문고는 모두 소련에서 출판된 책을 번역한 것이며 1950년 6월까지 총 3집이 발행되었다. 이 문고는 기관지와 달리 북한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판매되었다.⁶⁵⁾ 조국보위후원회가 이 문고를 발행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소련군 전투영웅들의 모범사례와 ‘소련 인민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투지, 원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조국

65)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군사지식』, 창간호(평양: 민족보위성 전투훈련국, 1950), 1~2쪽.

66) 느·즈루아르지, 『불멸의 이름』, 신일군 율김(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49.11.30.), 1~95쪽, SA 2008-8-51; 쓰·우샤꼬브, 『전투의 날』, 고종옥 율김(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 1~126쪽, SA 2012-6-151; 와실리·크로쓰만, 『쏘獨戰記』, 리명국 율김(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6.1.), 1~279쪽, SA 2012-1-52.

을 방어한 것'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었다.⁶⁷⁾

이와 함께 조국보위후원회는 회원들에게 군사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군사기술연구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사업에 따라 각 지역과 직장에 “항공, 포, 탱크, 해양, 자동차 등 각종 연구씨클”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조국보위후원회는 청년회원들에게 군사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후원회의 각급 단체에 “기술연구지도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군사기술연구사업은 1950년 5월 시점에도 아직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연구지도원들을 교육하고 전체 청년회원들을 취미와 기술수준에 따라 군사기술연구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라고 지시했다.⁶⁸⁾ 더불어 각급 초급단체에는 초급단체 지도일꾼의 지휘를 받는 ‘기술연구사업지도일꾼’이 임명되었다.⁶⁹⁾

2) 군사훈련과 집단체육훈련

조국보위후원회는 군사지식·군사기술을 교육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회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 본부에 훈련부를 설치했다. 훈련부는 기관지 『조국보위를위하여』를 통해 군사훈련 방법을 지도했다. 앞의 <표 2>

67) 와쉴리·크로쓰만, “쏘독전기를 우리말로 출판하면서,” 『쏘獨戰記』, 4쪽.

68) “<사설> 군사기술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1~2쪽.

69) 김두순, “초급단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41쪽.

에서 보이듯 1949년 10월호에는 제식훈련법을 게재했고, 1949년 11월호에는 보총의 사격법을 게재했으며, 1950년 5월호에는 훈련의 기본동작을 게재했다. 중앙본부는 기관지에 군사훈련 방법을 게재한 뒤에 이를 하부단체에 지급해서 기본교범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각급 초급단체에는 ‘훈련지도일꾼’이 배치되어 군사훈련을 전담했다.⁷⁰⁾

또한 조국보위후원회는 회원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 각 직장과 농촌의 하부단체에 “청년훈련대”를 조직했다. 청년훈련대에 소속된 회원들은 단기야영훈련을 받았으며 이들은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 지식과 군사기술을 습득하고 체력을 단련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항공기술, 발동기기술, 포기술, 해양기술 등 군사과학기술을 습득했다.⁷¹⁾

각 직장에는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구성된 청년훈련대가 편성되었다. 청년훈련대 대장은 “조국보위후원회 련대장”으로 불렸다. 이 훈련대에는 “보안대”에서 대대장과 대원들이 파견되어 청년회원들을 훈련시켰다.⁷²⁾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훈련 간부’는 각 지방의 민주청년동맹 초급단체 위원장이 맡았다.⁷³⁾ 청년훈련대에 소속된 청년회원들은 각 병종별 군사과학기술을 습득했고 야영훈련을 통해 전투 기술을 습득했다.

한편 조국보위후원회는 청년회원을 대상으로 “집단적 체육훈련사

70) 김두순, “초급단체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 41쪽.

7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 282쪽.

72)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평양: 평양화학공장 문학씨를 민청위원회, 1950.1.18), 20~23, 97쪽, SA 2012-1-143.

73)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민청당조 제50차 회의록(1949.12.20),”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4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6), 166쪽.

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50년 5월 시점에는 북한의 각 공장, 광산, 농촌, 어촌 등 모든 지역에서 청년회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집단체육훈련이 실시되었다.⁷⁴⁾ 중앙본부는 각급 초급단체마다 별도로 훈련지휘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집단적 체육훈련사업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인물을 선정해 기관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가령 1950년 5월호에는 남포시 유리공장 초급단체 간부 송중모가 “열성적 초급지휘자”로 홍보되었다. 그는 기계과 제반공이었다. 송중모는 집에서 7리 떨어진 훈련장에 매일 가장 먼저 도착해서 훈련준비를 마쳐 놓고 간부학습을 진행했다. 그 결과 남포시에서 가장 뒤쳐졌던 유리공장 훈련원들은 남포시의 ‘모범훈련원’으로 육성되었고 송중모는 모범표창을 받았다.⁷⁵⁾

특히 중앙본부는 1949년에서 1950년에 이르는 겨울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기(冬期) 집단체육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각급 초급단체의 “훈련지휘자”와 초급위원회의 “훈련책임자”가 조직하고 집행했다. 그리고 동기훈련이 끝난 후에는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성진제강소 초급위원회의 경우 1950년 4월에 동기훈련에 대한 보충학습과 집체훈련 등 보충교육을 실시했으며 정기적인 시험제도와 교체·검열제도를 수립했다. 그리고 일요일을 이용해 개인과 반 단위로 경기대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훈련을 주도한 사람은 훈련책임자 김장록이었다. 그 결과 성진제강소 초급위원회는 “성진시 경기대회” 당시 훈련의 기본동작 부문에서 우승했다.⁷⁶⁾

74) “〈사설〉 군사기술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1쪽.

75) “열성적 초급지휘자 송중모 동무,”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21쪽.

반대로 동기 집단체육훈련에서 단점을 보인 초급단체는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다. “순천화학공장 조국보위후원회 단체”는 동기훈련 총화 기간까지 훈련 초기에 보였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중앙본부는 “공장훈련지휘자 조중원”이 매일 상학시간을 25~30분밖에 보장하지 못했으며 1950년 3월에는 간부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책임은 순천화학공장과 조국보위후원회 순천군본부의 지도간부들에게 있으며 앞으로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고쳐서 중앙본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라고 지시했다.⁷⁷⁾

그런데 조국보위후원회가 실시한 집단체육훈련은 단순히 청년들의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활동이 아니었다. 중앙본부 훈련부 부부장 김병연은 1950년 5월에 조국보위후원회 황해도본부 산하 지방단체에서 진행한 “채점경기대회”를 모범적인 체육훈련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이 경기대회의 형식과 방법을 “여름철훈련” 과정에서 널리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기대회에서는 “군사스포츠경기”가 펼쳐졌다. 채령군본부에서 조직한 채점경기대회에는 농촌·직장을 대표한 1,000여 명의 청년과 다수의 군부대가 참가했다. 중앙본부 훈련부는 경기대회를 전체 하부단체에 시행하기 위해 경기종목과 훈련과목을 세분화했다. 훈련과목은 “전호파기, 연락동작, 훈련장에서 이동전진, 전호수색동작, 탄환운반동작”이었고, 경기종목은 “묘준(瞄準) 연습, 수류탄 투탄, 열병행진”이었으며, 기타 훈련과목은 “기계체조, 장애물 돌파, 높이뛰기, 넓이뛰기, 비상소집”이었다.⁷⁸⁾ 조국보위후원회가 실시한 집단체육훈련

76) “사업경험을 살리어 높은 성과 쟁취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33쪽.
 77) 김병연, “집단적 훈련 체육에서 채점경기대회를 넓히 진행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36~37쪽.

은 사격법, 수류탄 투척법, 정찰법, 제식훈련, 공병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이었고, 이것은 사실상 인민군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사훈련이었다.⁷⁹⁾

이처럼 조국보위후원회는 기관지, 군사기술연구사업, 청년훈련대 조직사업, 집단체육훈련사업을 통해서 청년회원들에게 군사기술과 군사지식을 교육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므로 북한정부는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청년회원들에게 신병의 기본훈련에 해당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대의 집단적 조직문화와 규율을 심어 줌으로써 유사시에 이들을 즉시 동원해서 인민군과 내무군의 신병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육성한 것이다.

5. 맺음말

북한의 정치세력은 군사원호사업의 모델을 제2차 세계대전시기 소련·중국·일본에서 찾았고, 각 국에서 추진한 군사원호사업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 뒤에 이를 해방 이후 북한에 적용했다. 이들은 1946년부터 애국미헌납운동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권 운영에 필요한 양곡·임금·금품을

78) “사업경험을 살리어 높은 성과 쟁취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 33쪽.

79) 조국보위후원회는 휴전을 앞둔 1953년 7월 15일 시점에 청년들을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면서 조직성·규율성을 심어 주기 위해 ‘군사스포츠사업’을 새로 구상했다. 이는 전쟁 전의 군사스포츠경기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조국보위후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15일.

헌납받았다. 그리고 다양한 계급과 계층에서 모범인물을 발굴하고 각 지역의 미담을 수집해서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북한지도부는 2년 동안 대중적 동원운동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 동원의 수단과 방식을 체계화한 뒤에 이를 군사원호사업에 적용했다.

북한의 군사원호사업은 군인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청년들을 군대의 보충역으로 양성하며, 무기구입기금을 축적하는 군사적·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정부는 군사원호사업을 통해 정규군의 전력을 급격히 증강할 수 있었고 전시에 필요한 예비병력을 양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군사원호사업은 주민들을 정부의 정책에 긴밀히 결속시켰다. 북한정부와 조선로동당은 군사원호사업에 참여한 미담사례와 모범인물을 애국자로 격상시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같은 미담과 모범사례는 이를 접한 주민들이 군사원호사업에 더 많이 동참하게 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성과를 보이면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정부는 기금헌납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 체제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북한지도부의 기획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시에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은 개전 이후에 군사원호사업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했다. 원산시 각계를 대표하는 여성 400여 명은 1950년 7월 25일에 ‘여성호’를 인민군대에 헌납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노동 여성들은 연장작업 수입과 일체의 잔금을, 농민 여성들은 농작물과 가축들을, 사무원 여성들은 급료의 30%를, 가정부인들은 비금속품을 비행기헌납기금으로 헌납하기로 결정했다.⁸⁰⁾ 기금헌납운동은 개전 이후에 종교단체까지 확대되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1950

년 8월에 기금을 모아 비행기 ‘교인호’를 헌납하기로 결정했다. 유봉사 목사는 9월 1일에 조국전선 호소문 지지연설을 통해 ‘하루 속히 성과있게 완수하여 조국의 무력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발언했다.⁸¹⁾

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지도부가 전쟁 전에 구축해 놓은 군사동원체제가 개전 이후에 남한지역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서울에 있는 경성고무공장, 서울열차구 용산구, 조선제면 등 20여 개 직장 노동자들은 1950년 7월 18일에 타월, 칫솔, 농구화, 비누, 과자 등 2,000여 점의 선물을 전선으로 보냈다. 또한 서울시 여성동맹에서는 7월 8~16일까지 수건 2,490매, 비누 5,851점, 의류, 칫솔, 약품, 꿀 18초롱을 군인과 부상병들에게 보냈다.⁸²⁾ 이와 함께 서울시내 각 여자중학교 학생 3,000명은 7월 5일에 “인민군 원호대”를 조직해서 야전병원으로 나아가 간호사업 등 각종 인민군대 원호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⁸³⁾ 즉, 북한은 전쟁 전에 추진한 군사원호사업의 방식과 경험을 남한지역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는 군사원호사업을 통해 구축해 놓은 군사동원체제 덕분에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사원호사업을 담당했던 조국보위후원회는 전쟁이 발발하자 군사원

80) “원산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녀성호(비행기) 헌납에 총결기,” 습격기련대 민청위원회, 『라지오보도(1950.7.11-8.6)』.

81) “9·1 조중통 중앙: 조국전선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진술한 허헌 의장의 보고,” 조선중앙통신사 총남지사, 『조선중앙통신』, 제37호(1950.9.9.).

82) 문화선전성, 『선동원수첩』, 해방지구 창간호(평양: 문화선전성, 1950.8.15.), 30~31쪽, SA 2009-3-183.

83) “서울시의 녀학생들 인민군 원호대 조직,” 『로동신문』, 1950년 7월 9일.

호활동을 넘어서 후방 경비와 간호원·위생원 양성 등 북한군의 후비대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국보위복권사업을 통해 군비 확장에 기여했다.⁸⁴⁾ 이 글은 6·25전쟁 당시에 북한의 군사원호사업과 전시동원체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 주제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 투고: 2025.02.10. / 수정: 2025.03.26. / 채택: 2025.04.03.

84)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224~236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2권(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8.5.).

느·즈루아르지, 『불멸의 이름』, 신일균 옮김(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49.11. 30.).

문화선전성, 『선동원수첩』, 해방지구 창간호(평양: 문화선전성, 1950.8.1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사회과학출판사 엮음, 『조선말대사전』, 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한림학사 이·민츠, 『소베트군대략사』, 상권, 김동철·현희안 공역(평양: 민주조선사, 1949).

쓰·우샤프브, 『전투의 날』, 고중옥 옮김(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

외설리·크로스만, 『소獨戰記』, 리명국 옮김(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6.1.).

조선중앙통신사 엮음, 『조선중앙년감(1950년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2) 신문

『로동신문』, 1949년 8월 28일; 1949년 9월 17일; 1949년 9월 30일; 1949년 10월 1일; 1949년 10월 13일; 1949년 11월 23일; 1950년 1월 5일; 1950년 1월 13일; 1950년 1월 27일; 1950년 2월 12일; 1950년 7월 9일; 1953년 7월 15일.

『朝鮮新聞』(朝鮮人民을 위한 소베트군대신문), 1947년 1월 4일; 1947년 1월 11일.

3) 기타 자료

金賢, “人民軍隊에 드리는 人民들의 情誠,” 『새조선』, 제2권 2호(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3.18.).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평양: 평양화학공장 문학씨클 민청위원회,

1950.1.18.).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1): 조국보위후원사업과 군무자가족
원호사업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한다』(평양: 문화선전성, 1950).

_____, 『조선인민군 창립 2주년에 제하여(2):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무장력은 남반
부인민들의 구국무장유격투쟁을 고무격려하며 승리에 대한 굳은 자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평양: 문화선전성, 1950).

북조선민주녀성총동맹, 『조선녀성』, 1949년 9월호(평양: 조선녀성사, 1949).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로동자』, 제2호(평양: 로동자신문사, 1948).

습격기련대 민청위원회, 『라지오보도(1950.7.11~8.6)』(평양: 습격기련대, 195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決定 第45號: 朝鮮人民軍隊 戰士 및 下士官들의 扶
養家族 援護에 關한 決定書,” 내각사무국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각공보(1949년 1~6월)』(평양: 내각사무국, 1949).

朝鮮人民軍 第845軍部隊長, 『服務證明書』(평양: 제845군부대, 1949.6.1.).

조국보위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49).

_____,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5호(평양: 조국보위를위하여社, 1950).

조선중앙통신사 충남지사, 『조선중앙통신』, 제37호(대전: 조선중앙통신사 충남지사,
1950).

조쏘문화협회 중앙위원회, 『조쏘친선』, 1949년 10월호·11월호(평양: 文化出版社,
1949).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엮음, 『북한관계사료집』, 30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8).

_____, 『북한관계사료집』, 4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6).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1(서울: 선인, 2003).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서울: 역사비평사, 2018).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권(서울: 나남, 1996).

2) 논문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선호,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기원과 6·25전쟁 이전 조직·활동,” 『동북아연구』, 제35권 2호(2020), 129~159쪽.

김재웅,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현실』, 제56호(2005), 237~268쪽.

문미라,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 제109호(2018), 205~243쪽.

3) 신문

『동아일보』, 1933년 2월 10일; 1933년 11월 9일; 1934년 2월 20일; 1937년 10월 23일; 1937년 11월 3일; 1937년 12월 9일; 1939년 2월 9일; 1950년 5월 12일; 1950년 5월 13일.

A Study on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Projects Before the Korean War, 1946~1950

Kim, Seon Ho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North Korea's political power sought models for military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China, and Japan during World War I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s and cons of the military support projects promoted by each country, and applied them to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From 1946, North Korea's political power promoted the Patriotic Rice Donation Movement and the National Foundation Ideology General Mobilization Movement, appealing to the spontaneity of the people to collect grain, wages, and money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regime. In addition, they discovered exemplary "heroes" from various classes and strata and collected encouraging stories from each region to publicize to the peopl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ystematized the means and methods of mobilization through the experience accumulated while conducting a mass mobilization movement for two years and applied them to the military support projects.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projects achieved military and economic results by supporting soldiers mentally and materially, training young people as supplementary forces for the military, and accumulating funds for weapons purchases. Through military support activiti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rapidly increase the power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train reserve forces necessary for wartime. In addition, the military support projects closely tied North Korean citizens to government polici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publicized favorable stories and exemplary workers, farmers, and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military support projects as "patriots" and "heroes" and promoted them extensively. These favorable stories and exemplary cases were reproduced and expanded as more citizens who encountered them participated in the military support projects. As a result, North Korean citizens came to realize that they could become patriots and heroes if they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achieved results,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amiliarized citizens with the mobilization system through fund donation campaigns.

Keywords: North Korean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North Korean army support projects, weapons purchase fund donation movement, total mobilization campaign of thought for state building, Stakhanov movement